

# 서울大齒大워크샷, 現實에 맞는 齒科教育으로 改善

奉仕活動의 態度 / 繼續的인 學習姿勢 / 指導者의 專門人力 養成 / 齒科醫師團體의 能動的 參與等의 教育目標 討議



現行 우리나라 齒科教育을 時代的 要請에 副應토록 教科課程을 時急히 改善하는 것이 切實하다는 主張이 서울大 齒大워크샷에서 提示되었다.

지난달 30일 서울齒大에서 開催된 第6回 齒科教育워크샷의 「韓國齒科教育의 問題點」(金明國 서울치대교수) 提示에 對한, ▲教育目標, ▲教科課程, ▲教育方法, ▲教育의 評價等 4個그룹의 分任討議는 이같이 現行齒科教育의 自我發見이 時急하다고 指摘, 빠른 時日內 改編된 教科課程의 段階的 實施가 바람직하다는데 意見을 모았다.

이날 4個그룹워크샷에서 「教育目標의 問題點」으로는 良質의 齒科醫師를 教育目標로 設定하되 奉仕活動의 態度·繼續的인 學習姿勢·指導者의 專門人力養成·齒科醫師團體의 能動的인 參與等의 教育目標가 바람직하다고 強調했다.

「教科課程의 問題點」은 教育目標에 符合된 教科課程編成·効率性 增大·講義 및 實習의 Vertical System導入·予科本科의 連繫性 導入等이 提示되었고 「教育方法의 問題點」은 大單位 講義에서 一方的인 傳達方法의 脫皮·모티베이션 誘導·補助器具 活用等을 通한 幅넓은 教育方法을 主張했다.

또 「教育의 評價 問題點」에서는 基礎와 臨床을 分離하여 理論 및 實習에 對한 評價를 하되 暗記式 爲主를 排除하고 主·客觀式的 適切한 配合으로 主觀式은 講義內容의 應月力 出題를 하며, 實習에 對한 評價는 材料로서 直接實施하는 方法 및 掛圖使用等이 提示됐다.